

# 혁신도시 특화산업 집중 육성한다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2'의 청사진이 나왔다. 시·도별 혁신 거점인 '국가혁신클러스터'도 본격 가동된다.

지난 26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한국의 국토교통부는 전날 혁신도시의 발전 방향과 추진전략 등을 담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 제9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최초로 수립하는 5년 단위 계획이다.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월 발표한 '혁신도시 시즌2(2018~2030년)'를 구체화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지원, 정주여건 개선,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이다. 특히 지역의 자립적인 발전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혁신도시별 발전 테마를 선정했다. 또한 혁신도시별로 발전재단을 세워 특화발전 전략이행을 주도하고, 산·학·연 협력 증진을 위한 컨트론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상생발전 기금 조성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하지만 혁신도시 추가 지정은 이번 계획에서 빠졌다.

이번 계획에는 총 131개, 4조 3,000억 원 수준의 사업이 반영됐다. 분야별로는 특화발전 지원에 2조 9,000억 원(67%), 정주여건 개선 1조 1,000억 원

(26%), 상생발전 3,000억 원(7%)으로 구성됐다. 주요 사업은 부산 STEM 빌리지 조성(2,300억 원), 대구 뇌연구 실용화센터 건립(527억 원), 광주전남 에너지 사이언스파크 조성(1,480억 원),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클러스터 조성(3,525억 원), 경북 미래교통안전 클러스터(1,088억 원)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균형발전위원회에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는 지난 3월 개정된 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14개 시·도가 각 지역의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수립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혁신 클러스터는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지역에 존재하는 핵심 거점들을 연계해 조성하는 혁신 거점 육성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국가혁신클러스터의 혁신성장을 이끌 '지역 중핵기업' 182개를 선정하고, 2022년까지 투자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도별로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지원할 '국가혁신클러스터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또한 지역별로 종합 성과를 단계별로 평가해 예산을 차등 지원(최대 40% 차이)해 성과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8~2019년 예산 1617억 원을 투입해 2024년까지 신규 고용 1만 785명, 사업화 매출 2조 8,000억 원의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 출생아 수 33개월째 감소 합계출산율 1.0 붕괴도 코앞

8월 출생아 수가 8월 기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만 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지난 24일 '뉴스투데이'가 한국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8월 인구동향 자료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보다 2,800명(9.3%) 감소한 2만 7,300명으로 나타났다. 8월 출생아가 3만 명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1981년 월별 출생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33개월 연속 감소했다. 같은 달끼리 출생아 수를 비교하면 2016년 4월부터 지난 8월까지 29개월 연속 집계 후 최저 기록 경신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1~8월 누적 출생아는 22만 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 줄었다.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출생아 수는 32만 명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 7,771명이었다.

2002년 50만 명대가 무너진 이후 2016년까지 15년 동안 40만 명대를 유지하던 출생아 수는 지난해 35만 명으로 급감한 이후 또다시 1년 만



에 30만 명대 초반으로 급감하는 상황이다. 당장 내년에 출생아 수 30만 명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0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 수준이다. 통계청은 출산율이 현재 수준으로 낮게 유지될 경우 인구 자연증가세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시점이 이르면 2022년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혼인 건수도 감소세다. 8월에 혼인 건수는 1만 9,300건으로 1년 전보다 800건(4.0) 적었다. 2003년 8월 1만 9,080건을 기록한 후 최근 15년 사이에는 최저 기록이다. 8월에 신고된 이혼은 9,3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건(2.1) 줄었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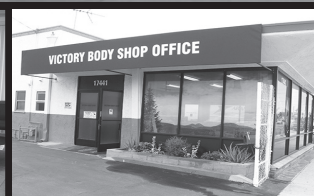
# 빅토리 바디샵

##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 ✓ 보험 수리 전문 (일단, 전화 먼저 주세요!!)
- ✓ Lease Return
- ✓ 보험 없는 분들 오시면 부담없이 수리해 드립니다
- ✓ 전화 or 방문상담 환영
- ✓ Towing & Rent Car



#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Email: victoryautobody@gmail.com

